

日本での交換留学

Keimyung University
SHIN JIWON

이번 학기는 처음으로 해외 생활을 해봄과 동시에 처음으로 자취한 학기입니다. 처음으로 나 혼자의 주소 등록을 해보고, 처음으로 공과금을 내보았다. 혼자 해내야 하는 것이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 과제와 시험 방식이 달라서 처음에는 수업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12월이 되어서야 일본의 수업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수업 내용의 이해도가 올라갔습니다. 리액션 페이퍼나 수업 중에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 과목이 많아서 별로 질문이 없을 때 질문을 짜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종합적인 과제 양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난이도나 각 과제에 걸리는 시간은 적어서, 한 번에 큰 과제를 내야 하는 한국보다 작은 과제를 여러 번 내는 일본 방식이 점수를 모으고 만회하기에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중간 시험은 오픈북이거나 없는 과목이 많고, 기말과 매 수업마다 나오는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매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말시험은 한국보다 심리적으로 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말을 오픈북으로 진행하거나, 발표나 레포트로 기말을 대신하는 수업도 있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봤습니다. 규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놀랐지만, 여기서 생활하면서 작은 학교에 맞는 크기라고 느꼈습니다. 대학 도서관인데 국제적인 기준이 아닌 일본 방식으로 책이 정렬되어 있어서, 책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서가 안내도 잘 되어있지 않아서, 각 서가에 붙은 안내를 보고 일일이 찾아야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컴퓨터도 써봤습니다. 아이맥이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증을 꽂아야 작동하는 시스템도 한국과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작동이 느렸습니다.

사용하는 언어, 수업이나 학교 생활의 자잘한 방식,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이 불가능한 점은 달랐지만, 겨울에 패딩 없이 살 수 있고, 식재료도 비슷한 것이 많아 적응하는 것은 더 멀리서 온 학생들보다는 수월했을 것이라 느낍니다.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국밥이나 짬뽕을 먹을 수 있고, 언제든 한국 식재료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신오쿠보가 있어서 한국인이 해외 생활하기에 도쿄는 나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튜터분은 바쁘신 건지 별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서먹한 채로 끝났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 메일로 질문하면 국제과 직원분들은 잘 알려주셔서 그 점은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겨우 익숙해졌는데 벌써 학기말이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여겼던 시간이라 생각하니 그다지 나쁜 기분은 아닙니다.